한일 근대 신도(神道)사상 비교
-신도의 출현배경과 목적을 중심으로-

고남식*
nsko88@hanmail.com

<目次>

1. 들어가는 말
2. 일본 근대 신도사상의 성격
3. 한국 근대 신도사상의 성격
4. 한·일 근대 신도사상 비교
5. 맺음말

主題語: 일본 신도(Shinto), 천황제(Japan's Emperor), 강증산(Kang Jeungsan), 한일 근대(modernity of Japan and Korea), 이상세계(ideal world)

1. 들어가는 말

일본신화는 일본의 신들을 팔백만신(八百萬神)이라 총칭하고, 이를 다시 '천신(天神)'과 '국신(國神)'으로 이원화한다. 천신은 천황가의 씨신(氏神)을 비롯해 일본열도에 존재했던 유력 씨족들의 씨신을 말하며 국신은 일본 열도에 선주(先住)하고 있던 자연신 내지 천황가와 대립하거나 길항했던 유력 씨족들의 씨신을 말한다.1)일본에서 발생한 일본 민족신을 믿는 신도(神道)는 미발달한 종교로서 제사의례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이다. 신도에 대한 정의는 애매하며 창시자가 없는 자연발생적 종교로 일상에서의 생활태도와 관계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근대화의 길로 가던 메이지시대에는 민족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일본을 상징화하는 사상으로 신도가 부상(浮上)되었다.

일본의 신도는 토속종교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신격화하여 신으로 여기고 개인, 마을의 안녕과 풍작을 위해 그 앞에서 제(祭)를 올렸다. 그런데 일본의 오래된 신(神)숭배는 세계의 여러 종교에 비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2)신도라는 용어

*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1) 김후련(2012)『일본신화와 천황제 이데올로기』책세상, p.89
2) 윤광복(2009)『일본 신도와 가구라』태학사, p.15

는 중세로부터 근세에 걸쳐『고사기』,『일본서기』등에 의해 신도이론, 신도 신학이 성립되어 신사신도 및 학파신도가 있고 여러 신도중 주카신도는 신불습합(神佛習合)을 배척하고 신유일치(神儒一致)를 강조한다. 에도시대 유가에서 발생하였으며 도의적(道義的) 의의를 선양하였다. 홋고신도는 고전에 입각해서 불교와 유교도 배척하고 국체(國體)의 존엄을 찬양하여 결국 메이지 유신(維新)에 지도적 역할을 한 신도이론은 복고(復古)신도이다. 메이지 정부는 신도의 국교화(國敎化)를 촉구했다.3)

신도가 체계적 틀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고대 율령제 국가가 성립되면서였다. 신기령(神祇令)에 의해 모든 신들이 천신과 국신으로 양분되고 전국의 신사에 등급이 매겨졌기 때문이다. 신도가 종교적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불교의 세계관과 만나면서였다.4) 신도는 현세(現世), 타계(他界), 사후세계(死後世界)라는 세 개의 이차원 세계를 두고 죽은 이의 넋인 사령(死靈)은 더러움을 지니고 있는데 세월이 흘러 더러움이 정화되면 사령은 조령(祖靈)이 되고, 이 조령이 승화(昇化)되면 조상신인 씨신(氏神)이 된다.5)신도는 공동체의 생활과 관련된 신앙으로서 외래의 종교를 수용하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민간 신앙은 물론이고 모든 종교 교단을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족종교로 일본 원시공동체의 신앙으로 출발해, 우지가미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 공동체의 신앙으로 발전했다.6)신도란 자연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 종교이지 자연종교 그 자체는 아니다. 신도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궁정 신앙이 그 바탕을 이루는데, 일설에 의하면 9세기경부터 명확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한다. 어떻든 자연종교 안에서 형성된 신 관념 등이 당시 선진 문명국이었던 중국의 사상 등에 의해 재편성된 것이 신도이다. 신도는 교단 종교와 자연종교의 중간에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7)

한편 한국의 근대시기는 조선말기로 접어드는 시기로 서세동점(西勢東漸)하에 외세의 침탈과 내부적 혼란의 격동기이며 다양한 사상들이 출현하여 민중들에게 호응을 얻던 시대이다. 특히 동학(東學)의 태동과 함께 주장된 시천주(侍天主)와 인간평등과 존중의 정신은 조선의 체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했던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동학과 같은 맥락에서 창출된 강증산(1871-1909)의 해원(解冤)·보은(報恩) 상생(相生)사상과 신도(神道)사상은 좌절된 동학운동을 다시 재점화하여 자타(自他)의 존재를 상생(相生)의 장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강증산이 주장한 신도(神道)사상은 그 유래(由來)와 시원(始原)의 중심

3) 윤광복(2009), 위의 책, pp.18-19 참조.
4) 김후련(2012), 앞의 책, pp.87-88
5) 윤광복(2009), 위의 책, p.19
6) 김후련,(2012), 앞의 책, p.87
7) 아마도시마로 지음·정형 옮김(2001)『일본인은 왜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가』예문서원, p.31

을 최고위(最高位)인 구천(九天)에 두고 기존 유불선(儒佛仙)사상 등을 수용하며, 신인조화(神人調化)의 관계 속에서 최존(最尊)의 존재로 인간을 상정하고 있다. 아울러 하늘의 모사(謀事)와 인간의 성사(成事)를 기저로 하는 인존(人尊)사상과 맥이 닿아 있으면서 신도(神道)를 중심사상으로 주자학적 세계관을 벗어나 조선말기사회의 민중들을 자유의지(自由意志)를 내재(內在)하고 있는 주체적 존재로 고양(高揚)시켜 근대라는 새로운 장(章)으로 인도하는 기폭제(起爆製)가 되었다.

주지의 사실로 신도(神道)라는 의미는 이미 일본이나 조선에서 고대부터 존재해 왔는데, 일본에서는 불유(佛儒)사상 등과 습합(習合)되어 왔으나 한국에서는 신교(神敎)사회였던 고조선시대를 지나 일면 민간에서 무속(巫俗) 등을 통해 민간신앙으로 전래되어 오다가 본격적으로 근대 개화기인 조선말기 부터 강증산을 통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신도는 역사적으로 일본과 한국 문화에서 고대로부터 신(神)과의 교감(交感)을 통한 종교적 장이 열려왔다는 면에서 목적하는 바는 다르지만 근대에서도 그 비교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사를 보면 일본의 근대 신도에 대해서는 천황제, 국가신도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8) 한국 근대 신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성과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9)

이러한 연구사를 바탕으로 이글은 한국과 일본의 근대에 나타나는 신도사상에 대해 고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글은 2장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된 일본신도의

---

8) 일본 신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본 논문에서 신도와 관련 일본저자의 연구에 대한 한국어 번역문헌을 포함해서 참고한 주요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음을 밝혀둔다. 김용덕(2005)『일본근대사를 보는 눈』,지식산업사. 김후련(2012)『일본신화와 천황제 이데올로기』책세상. 나카스라 아키라 지음·성해준 옮김(2005)『근대 일본의 조선인식』청어람미디어. 리차드 H·미첼 지음·김윤식 옮김(1997)『日帝의 思想統制』일지사. 무라오카 츠네츠구 지음·박규태 옮김(1998)『일본신도사』예문서원. 박규태(2017)『신도와 일본인』이학사. 박영재(1994)「메이지 일본의 한국인식」『강좌 한일관계사』현음사. 아마도시마로 지음·정형 옮김(2001)『일본인은 왜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가』예문서원. 윤광복(209)『일본 신도와 가구라』태학사

9) 강증산의 신도는 신계를 인간계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면에서는 일본 신도와 통하는 면이 있으나, 최고신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신도의 목적하는 바가 다르므로 일본신도와 차이점을 갖고 있다. 한편 1930년대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었다. 1920년대 최남선은 불함문화론을 만들었는데 1930년대에 와서 공통신앙론에 따라 동방문화의 핵심이 "신도"이며 식민지에서 민속에 잔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그 잔존적인 민속신앙, 민간신앙을 정책상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조선의 고대신앙은 "일본의 고대신앙과 특별한 친연관계", 전체적으로는 계통적으로 동일하다라고까지 주장하였다. 그는 1. 신의 뜻에 따른 정치 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2. 한일 양국의 공통이상의 파악과 그 실현을 위한 원동력은 고신도(古神道) 이외에는 어떤 것도 없고, 3. 의지할 곳 없는 조선의 국신을 정치에 의해 제사지냄으로써 조선인의 거칠었던 마음에 윤기를 줄 수 있으며, 4. 일본의 국체(國體)의 연원이며 동양사상의 정화이며 조선과 일본의 양민족의 정신적 원리인 신도 하에서 조선 및 조선민족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최석영(1999)『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 권력』서경문화사, pp.63-65 참조)

성격을 기존 연구를 통해 출현배경과 목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10] 3장에서는 한국 신도의 성격을 문헌자료를 분석하며 그 출현배경과 목적을 찾아보았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살펴 본 내용을 중심으로 근대 일본신도와 근대 한국 신도에 대해 출현배경, 형성과정, 목적과 관련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근대에 성립되기 시작한 한국과 일본의 신도 사상이 어떤 연유로 출현하게 되었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봄으로써, 서세동점의 현실 하에서 신도라는 새로운 사상 체계 하에서 동아시아의 두 국가가 근대화의 방향성과 지향점을 어떻게 찾고자 했는가를 이해하여 미래 동아시아 사회의 공감과 공존의 장을 여는데 시사(示唆)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아울러 이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면으로도 일면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2. 일본 근대 신도사상의 성격

일본신화는 신도의 이론적 토대가 되며, 일본 신화의 세계관에 따르면 천황(天皇)은 만세일계(萬世一界)의 살아 있는 신(神)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신화가 고대의 신기(神祇)신앙, 중세의 신국(神國)사상을 거쳐 근세와 근대의 천황제 이데올로기로 변용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11] 일본의 신도는 일본 근대에 오면서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사상으로 형성되었다.

먼저 일본 근대 신도의 출현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근대를 규정하여 합리주의가 존중받는 시대라고 정의할 때 일본은 유감스럽게도 그 출발점에서부터 무리하게 신화를 국가 원리로서 채택했던 것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현실의 지배자인 왕(천황)이 곧 신의 자손이라고 공언하는 실로 독특하다면 독특하고 기묘하다면 기묘하기까지 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 일본의 근대의 출발에 있어 국가 경영에 신화라는 신비성을 끌어들였다.[12] 이처럼 천황제로 일본의 신도를 형성시켜가는 과정은 고대천황이었던 아마테라스 신화와 관계된다.

한편 천황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는 근대 일본의 정책은 교단종교와 자연종교 양쪽 모두에 극도의 왜곡과 변질을 강요했다.[13]

'민족종교로서의 신도'의 성립에 대한 여러 논의는 신도 범주를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

10)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요약 논의하였음을 밝혀둔다.
11) 김후련(2012), 앞의 책, p.88
12) 아마 도시마로 지음·정형 옮김(2001), 앞의 책, p.85
13) 아마 도시마로 지음·정형 옮김(2001), 앞의 책, p.118

한 관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오늘날 일본인론(日本人論)과 결부되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불변적이고 고유한 일본의 민족종교로서의 신도'라는 관념이 근대기의 국가신도 담론, 종교담론, 민속학적 고유 신앙론 등의 길항관계 속에서 태동했다는 점만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아마테라스를 여신으로 보는 관념이 그러하듯이 근대에 '새로 만들어진 전통'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다.[14]신국(神國)사상이란 일본은 만세일계의 황통(皇統)이 통치하는 나라이며 일본은 신명에 의해 보호받는 나라라는 관념 내지 정치사상이다. 중세신도에 이르러 아마테라스의 보편성과 절대성이 강조되면서 황조신 아마테라스가 신화적 존재에서 철학적, 사변적 최고신으로 변용되어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5]

일본인들의 신앙이 잡다하고 애매하게 된 것은 메이지 시대에 들어 천황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신도가 세력을 얻고 난 뒤부터이다. 정확히 말하면 천황숭배의 시스템 자체는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일신교적인, 다시 말해 새로운 국교로 간주해도 좋을 만큼의 체계와 일관성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체제 속의 사람들은 기꺼이 천황숭배를 행할 수 있었다.[16]메이지 천황은 근대 일본의 상징이자 막부가 종식되고 천황 친정체제가 확립되는 격동기 일본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대정봉환과 왕정복고, 메이지유신,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격동의 시기 서구식 근대화를 도입해 단기간에 국력을 신장시켰다.[17]

다음으로 일본 근대시기에 메이지 정부가 천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신도를 구축한 내용을 보기로 한다. 1867년 12월 왕정복고 대호령이 반포되어 형식적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몇 번들이 모인 오합 정권에 불과할 뿐 메이지 정부의 힘은 아직 약했다. 1869년 여러 번들의 토지와 영민을 조정에 반환할 것을 다이묘에게 명령하였다. 판적봉환(版籍奉還)이다. 정부는 일거에 번(藩)을 해체할 것을 결의하였다. 전국의 지번사를 모두 도쿄로 불러 모으고 몰래 사츠마와 죠수, 토사의 세 번으로부터 만 명의 병사를 빌려 폐번치현(廢藩治縣)을 단행하였다.[18] 메이지 정부는 셋쇼, 간파쿠 등의 관직을 폐지하고, 1868년 천황은 일세일원(一世一元)을 천명하고, 기본 방침 5가지를 천명했다. 정치상의 쟁점은 다이묘들의 의견을 모은 공론으로 결정한다는 것과 구습을 타파하고 천지의 공도를 따르며, 관민이 합심하여 나라를 번창하게 한다는 요지였다.[19]에도시대 말엽에 막부시대 말기의 지사들은 외세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지 못한 에도 막부를 부정하고 진무 창업의 정신으로 왕정을 복고

14) 박규태(2017)『신도와 일본인』이학사, p.356
15) 김후련(2007)「고대 천황신화의 성립과 그 변용」,김태정 외『일본인의 삶과 종교』제이엔씨, p.326
16) 아마 도시마로 지음·정형 옮김(2001), 앞의 책, p.111
17) 양은경 엮음(2012)『일본사를 움직인 100인』청아출판사, p.438
18) 카와이 아츠시 지음·원지연 옮김(2011)『하룻밤에 읽는 일본사』랜덤하우스, p.240
19) 양은경 엮음(2012), 앞의 책, pp.440-441

하고 제정일치를 목표로 한다. 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1876년에 통치권을 천황에게 봉환하는 '대정봉환'을 실행하고 260여년 동안의 에도막부는 막을 내리고 12월 '왕정복고의 대호령'이 선포되어 메이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다. 메이지 정부는 국체를 '천양무궁의 신칙'과 '만세일계'의 혈통에서 찾으면서 서구적 근대국민국가의 실현은 점점 멀어진다. 1867년부터 1945년까지 천황은 자신을 '짐'이라 주장하고 국민을 '신민(臣民, 신하인 백성)'이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메이지 시대의 일본은 '근대 천황제 신민국가'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20]

메이지 초기의 정한론은 요시다 쇼인이 주장한 막부 시대 말기의 정한론을 계승한 것이었다. 게다가 신정부 수립 직후에 정치적 불안이 발생하자 조선을 침략함으로써 시선은 외부로 돌리고 아울러 구미 열강에게 정치 경제 심리적으로 받은 압박의 대가를 조선으로부터 받아내려 한 것이다.[21]메이지 정부는 천황을 절대화하는 신도론으로 이론을 무장하고 제정일치(祭政一致)와 신불분리(神佛分離)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았다.[22]메이지 정부는 신도를 국교로 정하고 제정일치를 선언하여 천황을 신격화하였다. 천주교는 사교(邪敎)라 하여 금지되었다. 기독교의 유일신사상과 천황을 만세일계의 신으로 한다는 제정일치 체제가 서로 배척되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정치상황 속에서 권리를 잃은 사족들의 반란이 일어나 정한론을 주장하다 실각한 다카모리를 중심으로 세이난 전쟁이 촉발되기에 이르렀다. 진압되었으나 자유민권운동이 일어나 천황은 국회 개설 칙유를 내렸다. 1885년 내각제가 채택되었고 1889년 이토 히로부미가 초안한 대일본 제국 헌법이 공표되었고 제국의회가 발족되었다. 천황과 일본에 대한 충성을 촉구하는 교육칙어를 공표하여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체제 정립에 정점을 찍었다.[23]

다음으로 일본 근대 신도의 목적을 보기로 한다. 막부가 무너지고 메이지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사람들은 사농공상이라는 신분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국민'이라는 자격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았다. 프러시아가 일본식 근대국가의 모델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잊혀진 존재였던 천황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국민교화가 행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근대 국가는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짙은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24] 명치정부의 지도자들에게는 급속한 부국강병의

20) 김후련(2007), 앞의 책, pp.209-210
21) 나카스라 아키라 지음·성해준 옮김(2005)『근대 일본의 조선인식』청어람미디어, p.59
22) 아마 도시마로 지음·정형 옮김(2001), 앞의 책, p.105
23) 양은경 엮음, 앞의 책, pp.441-443 참조. 통감부 시기 일제가 마련한 기독교 규제법령은 재한 일본인을 대상으로 1907년 공포한「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이었다. 이 법령은 기독교를 신도와 불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차별하였고, 포교활동의 인가를 통하여 종교통제를 모색하였다.(윤선자(2002)『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경인문화사, p.37)

성취란 천황을 중심으로 국가를 통합하여 산업발전과 군비강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명치헌법도, 입헌제라는 겉모습과는 달리, 천황의 대권에 의해 모든 것이 제한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특히 군의 통수권은 천황에게 직속되는 것으로 분리시켰다.25)

한편 메이지 정부는 통치상의 기반을 천황 숭배에서 찾았다. 이러한 의도는 토막 운동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존황양이(尊皇攘夷)'라는 구호속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신의 자손인 천황이야말로 일본 지도자로서 적격이라는 논법이 결정적인 힘을 얻어 '신국(神國)'으로서의 국가 경영은 근대 일본의 최대 목표가 되었다.26)명육사원(明六社員)들은 개명적인 지식인 관료로 또는 명치 천황제(天皇製)이념을 제공하는 이론가로 전신하여 간다. 그러나 명육사의 한 기둥이었던 진보적 반골 정신은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재야에서 자유민권운동을 발전시켜 가는 밑거름이 되었다.27)

일본 신도의 역사에 있어 19세기는 중대한 전환기였다. 다양한 종교운동이 시작되었고, 일본 신도는 당시 정부의 공인을 받아 교파 신도가 되었다. 한편 고도로 순화된 황실신도는 국가종교가 되었고 1868년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신(神)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그리하여 관립 신사제도와 신기관(神祇官)이 부활하고 신사가 국가의 보호 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신도의 교의를 학교에서 가르치게 됨으로써 국가주의의 색채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제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의 국가 신도는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신사를 중심으로 하는 신사 신도만 남게 되었다.28)메이지 시대로 들어서면서 천황제 아래 신도를 주장하여 모든 국민을 광신도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생신(生身)인 천황을 신으로 만들었고 이 신도를 해외 침략의 발판으로 열성적(熱誠的)으로 활용했다. 탈아론(脫亞論)이거나 연대·합방론을 막론하고 그 인식의 기초에는, 첫째는 일본의 지도적 역할, 둘째는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우월성·예외성이란 자각이 깔려 있었다.29)메이지 유신 후 정부는 국민통합의 촉진과 사상조작의 정책을 계획했다. 근대적인 정치·경제 조직이 우선되고, 봉건주의는 완전히 폐지되었으나, 근대화의 계획은 전통적 가치관이나 결속이 튼튼한 집단생활의 구조에 깊이 의거되었다. 대규모의

---

24) 아마 도시마로 지음·정형 옮김(2001), 앞의 책, pp.84-85
25) 김용덕, 앞의 책, p.135. 메이지 정부는 가능하다면 신도를 국교로 삼고 싶었을 것이다. 천황을 지배체제의 중심으로 삼는 국가경영을 목표로 한 이상, 천황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절대화하는 종교 또는 종교에 가까운 이데올로기를 국가의 힘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수 된다면 민중의 지배가 상당히 용이해 지기 때문이다(아마 도시마로 지음·정형 옮김(2001), 앞의 책, p.97)
26) 아마 도시마로 지음·정형 옮김, 앞의 책, p.95
27) 김용덕(2005)『일본근대사를 보는 눈』지식산업사, p.90
28) 아마 도시마로 지음·정형 옮김(2001), 앞의 책, p.31
29) 박영재(1994)「메이지 일본의 한국인식」『강좌 한일관계사』현음사

제도적, 조직적 형태가 도입되어 지도층이 국력증강과 국제적 위신이라는 주목표가 달성되는 사회관계를 만들게 되었다.[30] 종교는 스스로 근대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천황제 국가라는 정치체제에 교묘하게 편입되어 가는 과정에서 근대화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수동적인 자세가 일본 근대 종교사의 가장 큰 특징이다.[31]

3. 한국 근대 신도사상의 성격

영국이 패권적 직위를 상실한 이후 19세기 후반기 세계체제의 다중심부적 구조하에서 더욱 강화되면서 주변부의 세계적 분할은 가속화되었고 마침내 20세기 초에 이르면 거의 분할이 종결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서구 자본주의 열강과 거기에 동참하게 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각국의 세력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의 약소국들을 청(淸)과의 전통적 조공(朝貢)관계에서 완전히 단절시킴으로써 동아시아국제질서를 중심부-주변부 구조로 전환시킨 결과였다. 강화도 조약이후 한반도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것이 일본 대륙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마침내 그 목적을 무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결과가 1894년 청일전쟁이었다.[32]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관련되며 이장에서 살펴보고자하는 한국 근대의 신도(神道)는 구천상제(九天上帝)인 강증산(姜甑山)을 정점(頂點)으로 이루어지는 신도사상이다. 강증산은 구천(九天)에서 강세(降世)한 상제(上帝)의 신격위로 자신을 최고위로 하는 신도를 세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세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그 문명[33]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34]

30) 리차드 H·미첼 지음, 김윤식 옮김(1997)『日帝의 思想統制』일지사, p.237
31) 아마 도시마로 지음·정형 옮김(2001), 앞의 책, p.86
32) 김기정(1994)「19세기 후반기 제국주의와 동아시아」, 한국역사연구회 지음『1894년 농민전쟁연구』3,역사비평사, pp.20-22 참조.
33) 17세기 이후 발달한 서양물질문명
34) 『典經』,「敎運」1장 9절. 이하『전경』표기는 '교운 1장 9절'의 경우 '교운 1-9'로 표기함.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의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구천에 있었던 강증산은 신도의 권위(權威)를 다시 세우는 종교적인 행적을 인간 세상에서 강증산(姜甑山,1871-1909)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게 된다. 이렇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출현한 한국 근대 신도는 구천에서 신(상제)으로 있었던 존재의 인간으로의 현신(現身)하에 광구천하(匡救天下)의 내용으로 주장된 것이며 이를 주장한 이는 강증산이다.

강증산은 추락된 신도의 권위를 회복하는 면에서 더 나아가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신단(神壇)을 구성하여 개벽(開闢)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을 제시하고[35] 후천(後天)이라는 새로운 세상에서의 신도의 원리와 가치관을 예시(豫示)하였다.[36]

한편 당시 개신교와 유교는 한국사회에서 각각 "문명의 종교"와 "망국의 종교"로 인식되었고, 이런 이분법은 한국의 근대성 성립과 함께 자명한 이치로서 정착되었다.[37]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증산에 의한 한국 근대에 신도를 출현시키기 위한 과정은 최제우의 동학과 관련되어 있다. 동학(東學)의 교리는 절대자 한울님을 믿으라는 시천주(侍天主) 사상으로 이는 신도적(神道的) 이념을 조선 민중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울님을 모시라는 새로운 외침은 봉건적 조선 유교사회에 큰 영향을 주며 새로운 사상에 대한 신앙의 자유가 자유롭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당시 봉건 유교사회의 폐단인 지방 수령 등의 가렴주구(苛斂誅求)로 발생된 동학 농민운동은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시천주(侍天主)사상과 함께 만민평등(萬民平等)을 통한 인간(人間) 존중(尊重)의 정신이 내재(內在)되어 있었다. 이러한 동학과 동학난의 정신은 기존 체계를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조선사회를 선회(旋回)시키는 기폭제(起爆製)가 되었으며 이는 강증산에 의해서 작난(作亂)과 동난(動亂)의 의미로

35)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오,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30)

36)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예시 80)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예시 81)

37) 장석만(2001)「근대문명이라는 개신교」,역사문제연구소 엮음『전통과 서구의 충돌』역사비평사, p.203

해석되었다.

「난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다스리는 사람이 있나니 치우(蚩尤)가 작란하여 큰 안개를 지었으므로 황제(黃帝)가 지남거(指南車)로써 치난하였도다. 난을 짓는 자나 난을 다스리는 자나 모두 조화로다. 그러므로 최 제우(崔濟愚)는 작란한 사람이오 나는 치란하는 사람이니라. 전 명숙은 천하에 난을 동케 하였느니라.[38]

동학이 철저하게 민족주체의식에서 출발하면서도 배타적 침략주의 및 국수주의나 열등의식으로 흐르지 않은 것은 근대사상사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접이 주도한 1894년 2월의 1차 봉기는 탐관오리의 징벌과 내정개혁을 요구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자체 계급투쟁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였다. 또한 갑오농민봉기가 실패한 다음 그 잔당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활빈당 투쟁과 동학의 일파가 변질된 '일진회(一進會)'는 친일매국노의 대명사가 되었다.[39] 이러한 작난과 동난이라는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난(亂)의 측면에 대해 강증산은 치난을 조선의 유교적 체제를 새로운 사상적 방향인 신도(神道)의 체계로 전향시키며 작난인 동학과 동난인 동학난으로 혼란해진 조선사회를 화평을 바탕으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강증산이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조선을 신도의 상생(相生)사회로 바꾸는 일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려 하였다.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의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궁을가(弓乙歌)에 조선 강산(朝鮮江山) 명산(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동학 신자간에 대선생(大先生)이 갱생 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代先生)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代先生)이로다」라고 말씀하셨도다.[40]

당시 동학 신자들은 최제우(崔濟愚)가 죽었지만 그를 대선생(大先生)이라 부르며 다시 최제우가 갱생할 것이라 믿고 교조신원운동(敎條伸冤運動)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선생

38) 교법 3-30.
39) 이상익(1997)『서구의 충격과 근대 한국사상』한울 아카데미, pp.371-372 참조.
40) 권지 1-11.

(大先生) 갱생(更生)이라는 동학 신자들의 믿음에 대해 강증산은 죽은 최제우가 다시 살아오는 것이 아닌 자신이 최제우를 대신(代身)하여 치난(治亂)에 입각 '참동학(眞東學)'을 새로이 전개시킬 대선생(代先生)이라 하며 신도(神道)라는 새로운 신앙체계를 이룩해나갔다. 위에서 신도는 불로불사(不老不死), 선경(仙境)의 낙(樂)이라는 강증산의 표명처럼 도가적(道家的)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강증산이 신도를 출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동학과의 상관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강증산 신도사상의 출현 배경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그 배경은 신도의 회복을 위해서이다. 이는 신성불보살이라는 존재가 구천에 있었던 강증산에게 청원(請願)한 것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들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구천에 있는 신(상제)에게 하소연하였고 이 하소연을 들은 구천의 신(상제)이 지상에 강증산이라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구원의 행적을 단행(천지공사,1901-1909)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상은 구원되고 이상세계가 지상에 이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이르시고「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41]

강증산은 신도(神道)를 토대로 구원의 행적을 행하였는데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도 신도의 권위가 추락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신도의 권위추락은 1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서양 물질문명의 폐해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41) 교운 1-9.

인류의 교만과 자연의 정복으로 신도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자, 천도(天道) 및 인사의 상도(常道)가 어겨지고 이로 인해 천지인 삼계가 혼란에 빠져 도의 근원이 끊기게 되자 신성불보살들이 구천에 하소연하였고 이에 지상에 구천 상제가 인신으로 하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결정적 요인은 신도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것이 된다.

한편 강증산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근대 신도의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근대 신도인 강증산의 신도는 앞으로 이루어질 전(全) 세계적 교류를 조망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현하였다.

>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지나간 임진란을 최풍헌(崔風憲)이맡았으면 사흘에 불과하고, 진묵(震默)이 당하였으면 석달이 넘지 않고, 송구봉(宋龜峰)이 맡았으면 여덟 달에 평란하였으리라. 이것은 다만 선·불·유의 법술 다른 까닭이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42]

동양과 서양의 교류 속에 혼란을 바로 잡을 때에 교류의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법을 합해서 써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도(道)가 신도라는 것이다. 이 신도는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원리로 선경(仙境)의 운수를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43]를 보면 신도(神道)는 천도(天道)와 인도(人道)를 모두 관장하는 도(道)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삼계(三界)의 혼란'이라는 말로 보아 지도(地道)도 포함될 것이다.

둘째, 조선을 세계적인 상등국(上等國)으로 만들기 위한 원리로 신도를 주장하게 되었다.

>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의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

42) 예시 73.
43) 교운 1-9.

조선이 신도와 관련 있는 신명들을 잘 모셔왔고[44] 풍수적으로 선택된 길지(吉地)[45]여서이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후천이라는 새로운 시대 신도의 발원지인 조선을 세계의 중심국이며 상등국[46]이 되게 하는 원리로 주장된 것이다.

셋째, 강증산 신도의 목적은 미래에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47]

위에서 '신명(神明)을 조화(調和)하고 신도(神道)를 풀어 조화(調和)했다'는 것은 강증산이 신도(神道)를 통해 세상을 제도(濟度)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신도는 인간사의 일도 조화(調和)하는데 관계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강증산을 상제로서 하느님으로 까지 추앙(推仰)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적혀있다.

>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48]

---

44) 조선과 같이 신명을 잘 대접하는 곳이 이 세상에 없도다.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갚고자 제각기 소원에 따라 부족함이 없이 받들어 줄 것이므로 도인들은 천하사에만 아무 꺼리낌 없이 종사하게 되리라.(교법 3-22)

45)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 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궁을가(弓乙歌)에 조선강산(朝鮮江山) 명산(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교운1-9)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이것이 젖(乳)샘이라.」고 하시고「도는 장차 금강산 일 만 이천 봉을 응기하여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하시고「상유도창중유태인하유대각(上有道昌中有泰仁下有大覺)」이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45)

46) 상제께서 종도들을 데리고 계실 때「현하 대세가 오선위기(五仙圍碁)와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훈수할 수 없어 수수 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맡았나니 연사에만 큰 흠이 없이 대접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니 옛날 한 고조(漢高祖)는 말위에서 천하를 얻었으되 우리나라는 좌상(座上)에서 득천하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28)상제께서 매양 뱃소리를 내시기에 종도들이 그 연유를 여쭈니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를 상등국으로 만들기 위해 서양 신명을 불러와야 할지니 이제 배에 실어오는 화물표에 따라 넘어오게 됨으로 그러하노라.」고 하셨도다.(예시 29)

47) 예시 9.

48) 공사 1-3.

앞 예문에서와 같이 '신명을 조화'한다는 말이 나타나는데 그 목적이 해원(解冤)과 상생(相生)의 원리로 후천(後天)선경(仙境)이라는 도가적(道家的)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 주장되었다.지상천국(地上天國)을 세워 세계민생을 건지려는데 있음을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신도의 목적은 신도의 정점(頂點)에 구천상제였던 강증산이 위치하며 이하 여러 신들이 하위에 있게 되는 성사재인(成事在人)[49]의 논리 하에 인간이 삼계에서 최존위(最尊位)인 인존(人尊)[50]세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4. 한·일 근대 신도사상 비교

앞 장에서 살펴본 한국과 일본의 근대 신도를 몇 가지 면에서 비교해 보기로 한다. 첫째, 신도의 구조적 체계와 관련하여 절대적 존재에 관한 것이다. 한일 근대 신도사상에는 최고위의 신과 관련된 면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근대라는 시기는 비슷하지만 강력한 서양세력의 충격을 같이 받고 있어서인지, 상호간의 영향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 근대 신도는 천황(天皇)을 정점으로 하는 사상으로 형성되었으며, 한국 근대 신도는 구천에서 강세한 강증산을 최고위로 하는 신도사상이다. 천황제로 일본의 신도를 형성시켜가는 과정은 고대 천황이었던 아마테라스 신화와 관계된다. 한편 한국 근대의 신도는 강증산을 정점으로 하는 신도사상이다. 강증산은 구천(九天)에서 강세(降世)한 상제(上帝)라 하고 자신을 최고위로 하는 신도를 세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세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천상제인 강증산은 신도의 권위(權威)를 다시 세우는 종교적인 행적을 인간 세상에서 강증산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게 된다. 이렇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출현한 한국 근대 신도는 구천에서 신(神, 상제)으로 있었던 존재의 인간으로의 현신(現身)하에 광구천하(匡救天下)의 내용으로 주장되었다. 강증산은 추락된 신도의 권위를 회복하는 면에서 더 나아가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신단(神壇)의 신도(神道)를 구성하여 삼계(三界)의 개벽(開闢)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을 제시하고 후천(後天)이라는 새로운 세상에서의 신도의 원리와 가치관을 예시(豫示)하였다.

이상에서 일본의 신도는 신화적 존재인 아마테라스라는 신화적 존재가 근대 천황과 대응되어 천황이 최고신으로 변용되는 천황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

49)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교법 3-35)

50)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교법 2-56)

근대 신도는 구천에 있었던 상제가 신성·불·보살들의 하소연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근대 일본과 한국에서의 신도 출현의 배경을 보기로 한다. 일본 근대 신도의 출현 배경은 외세의 일본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어 천황을 중심으로 신질서를 구축하여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한국 근대 신도사상의 출현 배경은 삼계에 추락된 신도를 다시 회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이상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이다. 한국 근대 신도는 전 세계사적 문제인식 하에서 새로운 신도가 필요로 되어서 이다. 즉 선·불·유의 종교가 세상에 출현하였으나 동양과 서양의 교류 속에 세상이 복잡해져서 더 큰 법술(法術)이 필요하게 되어 모든 법을 합해서 써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도(道)가 신도라는 것이다. 이 신도는 도가적 의미인 무위이화의 원리로 선경(仙境)의 운수를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국 근대 신도의 출현 배경은 세상의 추락된 신도(神道)의 회복을 위해서이다. 강증산은 신도를 토대로 구원의 행적을 행하였는데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도 신도의 권위가 추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신도의 권위추락은 1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서양 물질문명의 폐해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인류의 교만과 자연의 정복으로 신도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자, 천도(天道) 및 인사(人事)의 상도(常道)가 어겨지고 이로 인해 천지인 삼계가 혼란에 빠져 도의 근원이 끊기게 되자 신성불보살들이 구천에 하소연하였고 이에 구천의 상제가 지상에 강증산이라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구원의 행적을 단행(천지공사, 1901-1909)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상은 구원되고 이상세계가 지상에 이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에서 근대 일본 신도의 출현 배경은 서양 세력의 일본에 대한 외압이 가중되어 감에 따라 국가적 불안을 감지(感知)하여 신도가 출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대 한국 신도는 1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서양 물질문명의 폐해로 인류의 교만과 자연의 정복에 의해 신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천도(天道) 및 인사의 상도(常道)가 어겨져 천지인 삼계가 혼란하고 도의 근원이 끊기게 되자 신도가 출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일본과 한국에서 신도가 정립되어 가는 과정을 보기로 한다. 근대 일본 신도는 1867년 12월 왕정복고 대호령이 반포되어 형식적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정부가 수립된 후 연차적으로 폐번치현, 대정봉환, '천양무궁의 신칙, 만세일계 등을 해나가며 제정일치(祭政一致)와 신불분리(神佛分離)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 천황과 일본에 대한 충성을 촉구하는 교육칙어를 공표하여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체제 정립에 정점을 찍는다.

근대 한국 신도는 강증산의 계시(啓示)에 의해 최제우가 창도(創道)한 동학(東學)과 동학의 인간존중 정신으로 전봉준이 봉기한 동학농민운동을 통한 봉건적 조선 유교사회의 변동과

동학과 동학농민운동으로 야기된 문제들을 9년간의「천지공사」(1901-1909)라는 종교적 행적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강증산의 신도사상이 성립되어 간 것으로 나타난다.

또 '대선생(大先生) 갱생(更生)'이라는 동학 신자들의 믿음에 대해 강증산은 죽은 최제우가 다시 살아오는 것이 아닌 자신이 최제우를 대신(代身)하여 치난(治亂)에 입각 '참동학(眞東學)'을 새로이 전개시킬 대선생(代先生)이라 하며 신도(神道)라는 새로운 신앙체계를 자신의 생애에서 천지공사를 통해 구축해나갔다. 이 신도는 불로불사(不老不死), 선경(仙境)의 낙(樂)이라는 강증산의 표명처럼 민중들을 토대로 한 도가적(道家的)인 속성을 갖고 있다.

넷째, 일본과 한국에서 출현한 근대 신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근대 일본 신도의 목적은 천황(天皇)을 중심으로 국가를 통합하여 부국강병을 성취하기 위함임을 볼 수 있다. 또 근대 일본 신도의 목적은 '신국(神國)'을 이루어 천황제 국가에 대한 교파(敎派)신도로서의 종교성을 부여하는 면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일본신도의 목적은 천황을 신성시하여 민중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여 근대 천황제 신민(臣民)국가를 만들어 해외침략의 발판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한편 강증산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근대 신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강증산의 신도는 20세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전(全) 세계적 교류를 조망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현하였다. 2, 조선을 세계적인 상등국(上等國)으로 만들기 위해 신도를 주장하였다. 조선이 신도와 관련해서 어느 나라보다 신명들을 잘 모셔와 이에 대한 보은(報恩)[51]과 풍수적(風水的)으로 선택된 길지(吉地)[52]여서이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미래 개벽(開闢)사상에 의한 후천(後天)시대에 조선을 새로운 신도의 발원지로 삼아 세계의 중심국(中心)이 되는 상등국[53]으로 정립시키기 위해 주장되었다. 3, 강증산 신도의 목적은

---

51) 조선과 같이 신명을 잘 대접하는 곳이 이 세상에 없도다.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갚고자 제각기 소원에 따라 부족함이 없이 받들어 줄 것이므로 도인들은 천하사에만 아무 꺼리낌 없이 종사하게 되리라.(교법 3-22)

52)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궁을가(弓乙歌)에 조선 강산(朝鮮江山) 명산(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교운1-9)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이것이 젖(乳) 샘이라.」고 하시고「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봉을 응기하여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하시고「상유 도창 중유 태인 하유 대각(上有道昌中有泰仁下有大覺)」이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45)

53)「현하 대세가 오선위기(五仙圍碁)와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훈수할 수 없어 수수 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맡았나니 연사에만 큰 흠이 없이 대접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니 옛날 한 고조(漢高祖)는 말위에서 천하를 얻었으되 우리나라는 좌상(座上)에서 득천하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28)상제께서 매양 뱃소리를 내시기에 종도들이 그 연유를 여쭈니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를 상등국으로 만들기 위해 서양 신명을 불러와야 할지니 이제 배에 실어오는 화물표에 따라 넘어오게 됨으로 그러하노라」고 하셨도다.(예시 29)

미래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신명(神明)을 조화(調和)하고 신도(神道)를 풀어 조화(調和)하여 해원(解冤)과 상생(相生)의 원리로 후천(後天)선경(仙境)이라는 도가적(道家的)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 주장되었다. 이는 신도의 정점(頂點)에 구천상제였던 강증산이 위치하며 이하 여러 신들이 하위에 위치하여 '성사재인(成事在人)'[54]의 원리 하에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이 천지인 삼계(三界)에서 최존위(最尊位)가 되는 인존(人尊)[55]세상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이상에서 크게 보아 양국의 근대시기 신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근대 일본신도는 천황을 중심으로 국가를 통합하여 부국강병을 성취하며, 일본을 '신국(神國)'으로 이루어 천황제 국가에 대한 교파 신도라는 종교성을 부여하고, 신민(臣民)으로서 민중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여 근대 천황제 신민국가를 만들어 해외침략을 용이하게 하고자 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근대화의 과정에서 출현한 강증산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한국신도는 전(全)세계적 교류를 조망하고 세계적 범주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다. 또한 조선을 세계의 상등국(上等國)으로 만들기 위한 원리로 신도를 주장하여 이를 토대로 인간이 삼계에서 최존위(最尊位)가 되는 인존(人尊)세상이 되는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개화를 통해 근대에 출현한 한일 양국의 신도는 각 나라를 세계 최고의 지도자적인 국가로 만든다는 면은 통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일본신도는 천황제를 중심으로 신민(臣民)이 요구되는 부국강병을 위한 정치, 군사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근대 신도는 19세기말 하층민의 해원(解冤)을 중심으로 종교, 사회적인 면이 강조되어 신도(神道)를 평화적으로 전개시켜 국가적 차원만이 아닌 세계적 차원에서 17세기 이후 인간의 자연파괴와 물욕(物慾)에 의해 무너진 신도를 회복하여 삼계에 이상세계를 새로이 실현해간다는 것이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논의한 사항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근대 한국과 일본의 신도사상 비교

	근대	神的 배경	人間的 존재	출현배경	목적
1	일본 신도	아마테라스 신화	일본국 天皇	천황의 神格化	富國强兵, 國家神道, 神國, 天皇製 臣民國家
2	한국 신도	九天의 上帝	九天에서 降世한 姜甑山	구원을 위한 神道의 回復	世界의 救援, 朝鮮上等國化, 地上天國建設

54) 일을 이루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교법 3-35)

55)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교법 2-56)

5. 맺음말

앞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요약 정리해서 결론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도의 구조적 체계와 관련하여 절대적 존재에 관한 것이다. 한일 근대 신도사상에는 최고위의 신과 관련된 면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일본의 근대시기 신도는 천황(天皇)을 정점으로 하는 사상으로 형성되었으며, 19세기말 형성된 한국의 근대 신도는 과거의 삼계적 차원의 신도를 수용하며 천계 구천(九天)에서 강세(降世)한 강증산(1871-1909)을 최고위로 하는 신도사상이다. 일본의 신도는 신화적 존재인 아마테라스라가 근대시기 천황과 대응되어 천황이 최고신으로 변용되는 천황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근대화시기 신도는 구천에 있었던 상제가 신성·불·보살들의 하소연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구축된 것으로 되어 있어 다르다.

둘째, 근대 일본과 한국에서의 신도 출현의 배경을 보기로 한다. 일본 근대 신도의 출현 배경은 점차 외세의 일본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어 천황을 중심으로 신질서를 구축하여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한국 근대 신도사상의 출현 배경도 외세에 대응한다는 면은 동궤이나 다른 면은 다음과 같다. 해원사상에 입각 조선을 상등국으로 세워 삼계적 차원에서 추락된 신도를 다시 회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신계를 모두 포함해서 이상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이다. 근대 한국 신도는 1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서양 물질문명의 폐해로 인류의 교만과 자연의 정복에 의해 신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천도(天道) 및 인사의 상도(常道)가 무너져서, 이로 인해 천지인 삼계가 혼란에 빠지고 도의 근원이 끊기게 되자 신도가 출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한국 근대 신도는 인류가 당면한 전 세계사적 문제와 관계되며 신성·불·보살들이 구천에 위치하고 있는 구원주(救援主)에게 청원(請願)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근대 이후로 동양과 서양의 교류가 커져 세상이 더욱 복잡해져 더 큰 사상과 법술(法術)이 필요하게 되어 세상의 모든 법을 합하고 상생(相生)이라는 새 원리를 가미하여 출현한 것이 근대시기 한국 신도이며, 이는 도가적 의미인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원리로 선경(仙境)세상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일본과 한국에서 신도가 정립되어 가는 과정을 보기로 한다. 근대 일본 신도는 왕정복고 대호령이 반포되어 형식적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정부가 수립된 후 본격적으로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체제 정립에서 정점을 찍고 있다. 이에 반해 근대 한국 신도는 강증산의 계시(啓示)에 의해 최제우가 창도(創道)한 동학(東學)과 동학의 인간존중 정신으로 전봉준이 봉기한 동학농민운동을 통한 봉건적 조선 유교사회의 변동과 동학과 동학농민운동

으로 야기된 문제들을「천지공사」라는 종교적 행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 위해 조선말 근대 개화기 강증산의 신도사상이 수립 발전해간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일본과 한국에서 출현한 근대 신도의 목적을 보기로 한다. 근대 일본신도의 목적은 천황을 중심으로 국가를 통합하여 부국강병을 성취하며, 일본을 '신국(神國)'으로 이루어 천황제 국가에 대한 교파 신도라는 종교성을 부여하고, 신민(臣民)으로서 민중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여 근대 천황제 신민(臣民)국가를 만들어 해외침략의 발판으로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강증산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근대 신도의 목적은 왕정(王政)중심의 부패한 조선사회에서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원하여 인존(人尊)사상 하에 인권을 회복하고 화평(和平)을 목적으로 하는 해원상생(解冤相生)사상을 토대로 전(全)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며, 이 과정에서 조선을 세계 상등국(上等國)으로 만들기 위해 신도를 주장하게 되었다.

근대에 출현한 한·일 양국의 신도를 보면 신도적 체제를 중심에 두고 자국을 세계 최고의 지도자적인 국가로 만든다는 면은 통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있어 일본 신도는 천황제를 중심으로 신민(臣民)이 요구되며 부국강병을 위한 정치, 군사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한국 신도는 당대 조선 하층민의 누적된 원(冤)과 척(慽)을 풀어 종교, 사회적인 면에서 평화적으로 전개시켜 국가적 차원만이 아닌 삼계적 차원에서 신계에 존재했던 신도를 회복하여 천지인 삼계에 이상세계를 이루겠다는 면이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참고문헌】

김기정(1994)「19세기 후반기 제국주의와 동아시아」, 한국역사연구회 지음『1894년 농민전쟁연구』3, 역사비평사
김용덕(2005)『일본근대사를 보는 눈』지식산업사
김후련(2007)「고대천황신화의 성립과 그 변용」『일본인의 삶과 종교』제이엔씨
_____(2012)『일본신화와 천황제 이데올로기』책세상
나카스라 아키라 지음·성해준 옮김(2005)『근대 일본의 조선인식』청어람미디어
리차드 H·미첼 지음·김윤식 옮김(1997)『日帝의 思想統制』일지사
무라오카 츠네츠구 지음·박규태 옮김(1998)『일본신도사』예문서원
박규태(2017)『신도와 일본인』이학사
박영재(1994)「메이지 일본의 한국인식」『강좌 한일관계사』현음사
아마도시마로 지음·정형 옮김(2001)『일본인은 왜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가』예문서원
양은경 엮음(2012)『일본사를 움직인 100인』청아출판사
윤광복(2009)『일본 신도와 가구라』태학사
윤선자(2002)『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경인문화사
이상익(1997)『서구의 충격과 근대 한국사상』한울 아카데미
장석만(2001)근대문명이라는 개신교」,역사문제연구소 엮음『전통과 서구의 충돌』역사비평사

최석영(1999)『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 권력』서경문화사
카와이 아츠시 지음·원지연 옮김(2011)『하룻밤에 읽는 일본사』랜덤하우스
『日本書紀』
『古史記』
『典經』

논문투고일 : 2021년 04월 01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4월 15일
1차 수정일 : 2021년 05월 08일
2차 수정일 : 2021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5월 17일

<要旨>

한일 근대 신도(神道)사상 비교

－신도의 출현배경과 목적을 중심으로－

고남식

한국 신도(神道)와 일본 신도의 첫 번째 비교 관점은 신도의 구조적 체계에 관련된 궁극적 존재에 관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근대 신도사상에서 궁극적 존재가 등장한다. 근대 일본 신도의 최고신은 천황(天皇)으로 존재하고 한국 신도의 최고신은 구천상제(九天上帝)였던 강증산(姜甑山)과 관련된다. 다만 일본 신도에서는 아마테라스의 신성성이 천황에게 전가되는 형태이지만, 한국 신도에서는 구천(九天)의 상제가 신성·불·보살의 하소연으로 강세한다. 두 번째 비교 관점은 한국 신도와 일본 신도의 출현 배경이다. 일본 신도의 출현은 증대하는 외세의 영향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상층부의 요청으로 출현했다면, 한국 신도의 출현은 무너진 신도의 회복과 강증산을 정점으로 하는 후천의 새로운 신도의 진법(眞法)에 기반하여 신적 존재의 구천상제에 대한 청원으로 해원과 보은으로 세계를 구하고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는 취지하에 신도가 주장되었다. 세 번째 비교 관점은 일본신도와 한국 신도의 형성과정이다. 일본신도는 천황의 명령에 의해 시행된 반면, 한국 신도는 최수운의 동학의 시기를 지나 강증산의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종교운동에서 형성되었다. 네 번째 비교 관점은 일본 신도는 부국강병과 왕권확립이 목적이었다면 한국 신도는 지상천국(地上天國)의 건설이었다.

Comparison of Korean-Japanese modern Shinto thought

Ko, Nam-Sik

The first comparison point is about absolute existence in relation to the structural system of Shinto. In the modern Shinto thought of Korea and Japan, the aspect related to the highest god appears in the same way. The modern Shinto of Japan is formed by the idea that the emperor is at the top, and the modern Shinto of Korea is the Shinto idea that in relation to Kang Jeungsan. In Japanese Shinto, it can be seen that the mythical existence of Amaterasu is transformed to the emperor into the supreme deity in response to the modern emperor. On the other hand, In Korean Shinto, The Supreme God are supposed to have descended into the human world by the appeal of the sacred, Buddha, and Bodhisattva from Ninth heaven. Second, we look at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Shinto in modern Japan and South Korea. The background to the emergence of modern Shinto in Japan is that by the increased influence of foreigners on Japan a new order was built around the emperor.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modern Korean Shinto thought is to restore the Shinto in order to save the world, and build the ideal world at the cosmic level. The third is process by which Shinto is established in Japan and South Korea. In modern Japanese Shinto is established by the royal government restoration grand order which was distributed in December 1867. On the contrary Korea's modern Shinto is built by people's religious movement by Choi Jewoo and Kang Jeungsan. Fourth, the purpose of modern Shinto in Japan is to integrate the nations centered on the emperor to achieve wealthy soldiers. For Korea, the purpose of modern Shinto is to build the ideal world of the future.